

1994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농업기계 산학협동 연구 좌담회』
발표문 (1994. 10. 13.)

회사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김 의 한

금성전선(주) 작업차량사업부 부장

최근 우리나라 농업이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육, 문화적인 욕구가 증대하고 생활 수준 향상 욕구에 못 미치는 농업소득, 또한 3D 기피 현상의 확산에 따라 우리 농촌에서 젊은이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폐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우기 UR 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은 걱정의 수준을 넘어 체념에 가까워지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성공적 영농을 이룩한 예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소수에 그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당연히 구조 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이나 정책개발을 통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동안 수도작 위주로 추진되던 농업기계화가 이제는 전작, 축산, 과수, 원예의 기계화에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며, 토지 생산성을 중요시하던 과거를 벗어나 이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연구단체, 학계, 관계가 각각 그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농기계 생산업체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지금 이 자리가 그러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진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모방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였으나 그들은 단순히 제품생산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수입한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소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G7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제 바야흐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술제휴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일본은 모든 기술을 자신이 소화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욱 우수한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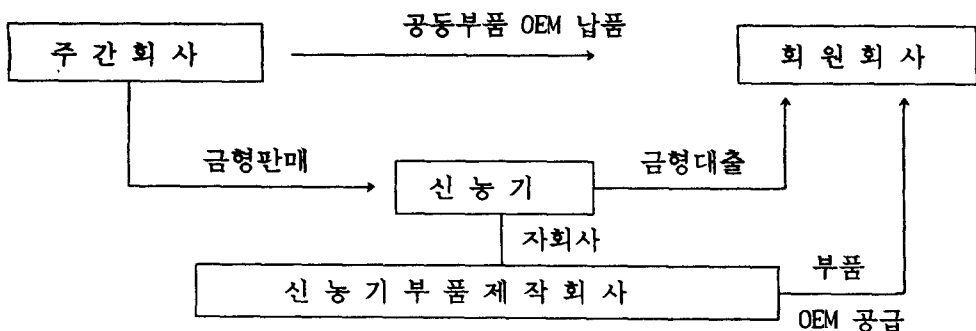
또한 우리가 일본의 예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경쟁하되 대외적으로는 협력하는 그러므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항상 유리한 승부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농기의 경우만해도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OEM을 통하여 각 사가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전략을 택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성사와 삼성전자간의 특허의 공동사용에 합의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만, 일본은 전산업 분야에 걸쳐 특허의 상호 사용은 보편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우기 농업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일본에도 대형 농기계의 수요가 점차 증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트랙터, 5조 이상의 대형 콤바인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농기 메이커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농업기계를 개발하기 보다는 개발 위험 분산과 비용의 절감,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주관으로 민간기업과 농업단체에서 공동출자하여 “신 농업기계 실용화 촉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재배기술과 기계기술을 결합하고 새로운 농업기계의 실용화를 추진하며 부품의 공용화를 도모하고 금형 치구 등의 공용화에 의한 원가절감을 피하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첨병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업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 ① 공동 제작할 기종을 ‘신농기’에서 결정하여 공고
- ② 결정한 기종에 대해 주간 회사를 ‘신농기’에서 지명
- ③ 주간 회사는 정부 및 ‘신농기’와 협조하여 시작품을 개발하고, 실 작업 시험까지 완료하여 성능을 확인
- ④ 주간회사는 이 기종 제작에 필요한 금형, 치구, 제어 소프트까지 ‘신농기’에 일괄 판매
- ⑤ 이 시점에서 ‘신농기’는 금형 사용 희망 기업을 모집.(회원회사 모집)
- ⑥ 신청 완료한 회원 회사는 이 기종의 공동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유상으로 임차
- ⑦ ‘신농기’는 자 회사로 신농기 부품 제작회사에서 그 금형을 사용하여 부품제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형을 빌리지 않고 공동 부품을 OEM 공급을 받을 수도 있음.

위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근에 YANMAR가 주간 회사가 되어 CA1200이라는 대형 콤바인을 제작하여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신농기 설립 이전에 그 투자 기관중 하나인 생물계 특정산업 기술연구기구 위탁에 의한 개발임). 이와는 다르지만 구미 각국의 기업들간에도 상호 부품공급 등을 통하여 일종의 생산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영업상으로는 경쟁을 하는 협조와 경쟁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트랜스미션 등을 상호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르노, FIAT, 볼보 등 여러회사의 승용차가 문을 공용화 하는 등 코스트 절감을 위하여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랙터의 경우도 엔진, 트랜스미션, 트랙터 등을 상호 OEM으로 공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생산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별첨참조)

과거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농업기계라 하면 경운기 외에는 기계라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행 이앙기, 바인더 등이 일부 국산화되어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수입된 45PS급 트랙터가 일부 농기업체를 통하여 소량 공급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80년대 초를 벗어나면서 비로서 기술제휴에 의한 콤바인과 트랙터의 국산화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외국 농기계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농기업체들은 그들의 대리인이 되어 경쟁을 하면서 점차 그들에게 기술적으로 예속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각 사는 나름대로 독자모델 고유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국내 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여 서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내업체로서는 자연스럽게 외국 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업체들은 국내의 기술 제휴사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며 담합하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은 뒷전에 미루고 새로운 선진 제품을 찾아 헤매어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국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제품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성능 제품으로 발전되어 나가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외국의 신모델을 도입 공급하는 바람에 사장되고 많은 투자를 하여 국산화한 부품들을 폐기시켜야 하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제휴의 대가도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일본과 콤바인 기술 제휴를 추진할 때의

일입니다만, 그간 생산하던 모델을 어쩔 수없이 신모델로 대체하기 위하여 상담을 벌였으나 갑작스럽게 초기 기술료(INITIAL DOWN PAYMENT)를 3배 가까이 올리고 전혀 물려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업체간에 담합을 한 기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모델 기술제휴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제품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을 소개드리면,

설계 및 개발 인원으로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인원으로 취급하는 제품은 중장비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작업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엔진, 시험기타 특수 작업기 등으로 선진회사에 비하면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써 이 부족한 인력으로 트랙터 독자 모델을 꾸준히 개발하고, 콤파인을 독자 모델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을 심화시키고 기술적으로 명실공히 독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3조 콤파인 기술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부족한 기술, 부족한 연구 인력, 부족한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각 사가 피나는 경쟁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힘을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시장을 지키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출 주력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호 받아오던 국내 농기 시장이 조만간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부의 외국사들은 시장개발을 대비하여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거나 기술제휴에 의한 국산화를 탈피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선진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대만의 경우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농기업체뿐만 아니라 아직도 기계화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 농업(수도작 제외)은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계가 건강해야 우리 농업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정보교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정보, 구매정보 기술 제휴선과 관련된 정보등을 서로 교환하여 정보력을 기르고 협상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둘째, 부품 공용화를 위하여 설계 또는 개발 담당자로 구성된 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부품 공용화를 추진하고 기 개발된 부품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노력과 비용을 줄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하여 과감하게 설계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사가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기술 자립을 위하여, 또한 대형 농기계의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하여 대형 트랙터, 대형 콤팩트 등을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합시다. 이를 위하여 정부, 학계, 업계를 포함하는 공동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능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합시다.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여 공존 공영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